



2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삼거동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기공식이 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등 내빈들이 기공식을 축하하며 시삽행사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첫 삽

빛그린산업단지 기공식 ... 23년 만에 국내서 차 공장 신설
노동계 참여 거부 ... “노사상생 없는 일자리는 미래 없다”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회통합형 노사상생 모델인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26일 자동차공장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23년 만의 자동차공장 신설이라는 경사다. 하지만 광주시와 함께 사업의 한 축인 지역노동계가 기공식은 물론 사업 참여 거부(보이콧)를 이어가면서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26일 오전 광주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적용되는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복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중앙 부

처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송종욱 광주은행장 등 주주와 지역 노사민정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시민 등도 착공을 축하했다.

지난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차 투자협약, 투자자 유치를 거쳐 9월 설립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공장 연내 착공으로 2021년 차량 양산을 목표로 달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 1998년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이후 23년 만에 국내에 자동차공장이 들어서게 된다고 광주시는 소개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공장 부지 매매계약을 했으며 건축 허가도 받았다. 공장은 부지 60만4300여㎡, 건물 연면적 10만9200여㎡로 연간 10만

대 생산 라인을 갖춘다. 시범생산을 거쳐 2021년 하반기부터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양산할 계획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친환경, 디지털, 유연화를 콘셉트로 공장을 짓고 틈장급 직원을 시작으로 1000여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협력사 등 간접 고용을 포함하면 1만2000여명 채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광주시는 예상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노사민정이 합심해 광주 글로벌모터스를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기공식에서는 장미빛 미래만 그려진게 아니라 사업 성공을 위해선 ‘노사상생’이라는 광주형일자리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한국노동총연맹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노동계가 불합한 것을 두고 문성현 경제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사에서 “앞으로 일자리는 노사상생이 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의 발언은 노사 화합, 노사 책임경영하지 않으면 노사 분규가 일상화되는 등 기업 경쟁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광주형일자리-반값연봉의 나쁜일자리’로 규정하며 반대하는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노사가 함께 희생해 지역에 일자리가 생겨난다면 힘을 보태겠다’며 그동안 사업의 한 축을 자임해왔었다. 그런데 광주시가 노사상생정신은 부정하고 현대차 등 투자자 중심으로 사업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이자 기공식은 물론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의당 광주시장·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기공식장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정 관계 개선이라는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 ‘지방선거 전초전’ 되나

광주 자치구, 차기 선거 노리고 출마 ... ‘대리전’ 양상까지

‘체육계 정치화’ 초래 우려

첫 민간회장을 뽑는 자치단체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지역 일선 지자체 체육회장 선거에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대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실상 ‘지방선거 전초전’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선 현직 구청장의 잠재적 경쟁 상대들이 체육회장 출사표를 던지면서 현 구청장들도 대항마를 물색하는 등 ‘정치 대리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단체장이 당면직 체육회장을 맡아 온 과거와 달리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취지로 시작된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자칫 ‘체육계의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광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도 내년 1월 15일 일제히 체육회장 선거를 치른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체육회장 선거가 2년 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동구체육회장의 경우 지역 내 한 사업가의 단독출마가 예상됐으나 최근 진선거 전 시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진선거 시의원은 최근 지역구를 복구에서 동구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구체육회 선거에서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출마를 했지만, 낙선한 이은방 전 광주시의회 의장과 이상동 전 광주시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체육회 선거는 서대석 현 정청과 임우진 전 청장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

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 청장이 당선된 뒤 서구체육회 임원 사직서를 낸 정모 씨가 출마를 준비하고, 서 청장 부임 이후 선임된 박도 상임부회장도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밖에 남구와 광산구는 체육계 활동을 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업가 등의 단독 출마가 예상된다.

이처럼 정치인의 직·간접 출마에 따라 일부 구청장들도 대항마를 준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체육회를 만들자는 취지의 민선체육회장 선거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선거운동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항은 있으나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해 향후 법적 분쟁이 다툴 여지도 있다.

전국 시·도와 시·군·구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표준안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2020년 1월 4·5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1월 15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의 제공 행위나 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광주시 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 체육회장 선거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체육회에서 각각 선출한 200여명 안팎의 대의원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지나친 경쟁 분위기가 불법선거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오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에 의과대학 유치 등 3대 과제 총력”

김영록 지사 송년 기자회견

김영록(사진) 전남지사는 “2020년 새해에는 의과대학,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 등 3대 핵심과제를 전남으로 유치하는 데 총력을 쏟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9년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일궈낸 8대 주요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미

래 성장동력으로 삼을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유치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올해 ‘블루 이코노미’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실현하는 데 주력하면서 지역이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또 ‘신소득 유망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미래 생명산업인 친환경 농수산업의 발전 모델을 구축했고 남해안 일대 주요 관광 거점 확충에도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한



전공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에너지 신산업 규제자유특구, 국가중합비행성능시험장, 국가면역치료 혁신플랫폼 구축 등 성장동력이 될 전략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인 한 해로도 평가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 3대 핵심 과제 추진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 지사는 “2020년에는 지역발전계획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핵심과제 유치를 도전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현안으로 모든 도민이 불편 없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2022년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또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광주·전남 대학,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연구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에 조성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靑, 5·18진상조사위원회 임명 재가 ▶3면

눈 없는 겨울 ... 포근한 광주 ▶6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이정은 정현 황희찬 최정
쥘피 스포츠 스타 “내년은 나의 해” ▶20면

쫘쫘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쫘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설화수 플레그니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플레그니스토어: 02-541-9270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